



해외 원자력 동향

미국

'청정에너지기준'에 원자력에너지 도입 주장

미 혁신연구소(Breakthrough Institute)와 제3의 길(Third Way)등 다수의 싱크탱크가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현재 주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이하 RPS)을 원자력에너지를 포함한 청정에너지기준(Clean Energy Standards, 이하 CES)로 변경 및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콜럼비아 자치구(District of Columbia)를 포함한 미 27개 주는 현재 RPS를 적용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RPS 기준에 의거하여 태양광, 풍력, 수력, 지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22년까지 약 26%의 발전 에너지 비율을 보유하는 것이 확대할 의무가 있다. 현재 미국 전체 발전비율의 약 16% 정도가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 구성될 것이다. 보고서 필진은 이

러한 변화가 '방향적으로 옳으나,' 더 안정적이고, 경제 적이며 신속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배출 에너지 도입을 주장했다.

보고서 필진은 포트폴리오에 원자력에너지를 포함 하는 것으로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 으며, 궁극적 목표인 무탄소 배출에 한걸음 더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연구소에 따르면 연방 및 주 정부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음에도 최근의 원전 조기 폐쇄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인 한 탄소 배출 절감 효과는 오히려 감소했다.

혁신연구소 관계자는 "원전이 조기 폐쇄되는 경우 대부분 신규 화력발전소로 대체되며 몇십년 간 운영 된다. CES를 도입할 경우 원전 조기 폐쇄 유인이 사라 지게 되며, 원전을 조기 폐쇄하게 되더라도 신재생에 너지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유지 운동이 확대되



었다. 다만 대부분의 친핵 운동이 단발적인 개별 원자력발전소 유지 운동에 한정되어 있거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을 대체하지는 수준의 제안에 그쳤다. CES는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에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원전 도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 안보, 안전성에 대한 의미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서 기후 변화에 대해 총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CES 도입 시 원자력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청정 에너지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기술, 선진 원자력 기술 등 신규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관련 기술 변화 추이에 맞는 정책을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가스 화력 발전에 많은 투자를 한 주는 탄소 포집기술에 집중 투자하여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기술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무조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절감한다. 이러한 기술은 CES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몇몇 주는 발전 포트폴리오 다양성과 친환경성에 주목하여 원자력발전소에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안한 바 있다. 뉴욕 주와 일리노이 주는 이미 무탄소 배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코네티컷 주는 폐쇄 위기에 있던 밀스톤(Milstone)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다른 발전원과 비교하여 심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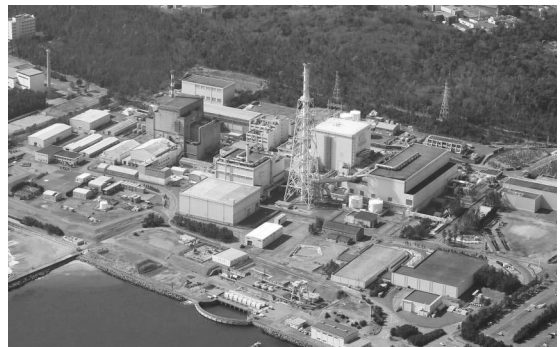
보고서 필진은 대부분의 주에서 RPS 적용 기간이 향후 2~3년 이후로 종료될 예정인 것을 고려하여, 발전 섹터 탄소 배출 감소에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인 CES 기준 도입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CES 기준이 유일한 기후 변화 대책은 아니지만, 그 간결함과 범용성을 고려할 때 현재 주 정부가 충분히 활용 가능한 대

안이다. 장기적으로 CES 기준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유연성과 혁신성을 보유할 수 있다.”

- <World Nuclear News> 07-06

일본

Tokai 제2원전 재가동 합격 판정



Tokai 원전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를 입어 비상 정지했던 도카이(東海) 제2원전이 재가동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카이 제2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앞으로 최장 20년간 더 재가동하게 된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7월 4일 일본원자력발전이 제출한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 승인 신청에 대해 안전대책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원전 전문가들이 모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도카이 제2원전을 재가동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교도통신>은 이는 사실상 재가동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3·11대지진 당시 피해를 입었던 원전으로서 첫 번째 재가동 승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이바라키(茨城)현에 위치한 도카이 제2원전은 일본 수도권 유일의 원전으로, 2011년 사고가 발

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다. 도카이 제2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으로 당시 쓰나미로 인해 외부 전원이 차단돼 비상 정지됐었다. 도카이 제2원전은 오는 11월 가동 40년을 맞아 운전 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원전 가동 연한 원칙은 한국처럼 40년이지만,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허가할 경우 최장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 <조선일보> 07-05

일본 정부 4년 만에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일본 정부는 7월 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재 전체 전력에서 15%를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2~24%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의결된 새로운 에너지 계획에 플라토늄 보유량 감축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1988년에 발효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토대로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에너지자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핵연료사이클 정책을 추진해왔다. 미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은 2016년말 기준으로 플루토늄을 47t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핵연료사이클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양만 계속 늘어나 이에 대한 일본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날 의결한 새로운 에너지 계획에 플루토늄 보유량 삭감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와 같은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원자력을 계속해서 '중요한 기간(基幹) 전원'으로 삼고 2030년 시점에서 전체 전력의 20~22%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에너지 계획에는 이외에도 발전 효율이 낮은 석탄 화력 발전 등은 신설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뉴시스> 07-03

'차세대 원자로' 개발 민간 협의체 추진

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한 국민 협의체 구성을 검토한다고 니혼게이지이신문이 7월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2018년도 중에 대형 전력회사와 원자로 제조업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안전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춘 원자로 개발과 사업화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지이는 설명했다.

니혼게이지이는 "관민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원자로로는 대형 원자로의 개량형 또는 10만~30만kW 정도의 소형 원자로도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대형 전력회사뿐 아니라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히타치(日立)제작소 등에도 국민 협의체 참가를 타진할 계획이다. 도쿄전력 홀딩스와 간사이(關西)전력은 정부 요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향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원전 재가동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며 "원전 일변도가 아니라 폭넓게 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쓰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07-11



중국

Sanmen 1호기 전력 생산 시작



Sanmen 1, 2호기 원전

중국은 최초의 AP1000 원전인 Sanmen 1호기가 6월 30일 전력망에 연결된 후 최초 전력 생산을 시작했으며, 2018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단계적 출력 상승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EPR 노형의 최초 원전인 중국 Taishan 원전이 전력을 생산한 지 하루 뒤에 이뤄졌다.

한편 WEC는 중국 내 동 원전을 포함한 총 4기의 AP1000을 건설 중이며, Sanmen 2호기와 Haiyang 1호기는 2018년 말, Haiyang 2호기는 2019년에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WNN> 07-02

첫 EPR 원자로 가동 성공

중국 광둥성에서 건설되고 있는 Taishan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지난 6월 29일 전력망에 연결됨으로써 전력 생산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EPR 원자로가 되었다고 프랑스와의 합작회사인 China General Nuclear International(CGNI)과 프랑스의 EDF 그룹이 공식

발표했다. Taishan 1호기는 올해 말쯤에 상업 운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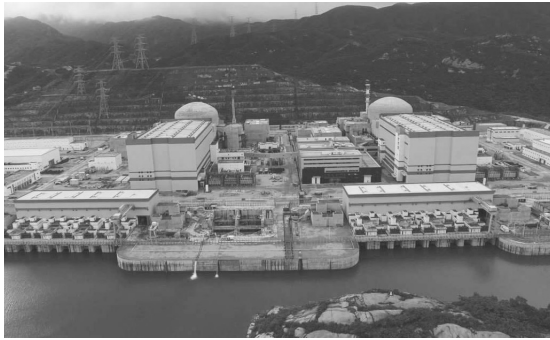
CGN UK의 CEO인 Zheng Dongshan은 이번 Taishan 1호기의 성공적인 가동은 중국의 원자력발전사에 있어서 큰 걸음을 내디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동시에 Hinkley Point C와 Sizewell C 원전 부지에 EPR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영국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PR 원자로가 세계 최초로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EPR 원자로의 기술적 성공 그 자체로써 뿐만 아니라 현재 EPR 도입을 계획 중에 있는 Hinkley Point C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프랑스 Flamatome의 회장 겸 CEO인 Bernard Fontana도 Taishan 1호기의 성공적 가동은 그동안 수 년에 걸쳐 이룩한 엔지니어링 기술과 각 부문 상호간에 긴밀하게 이루어진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Flamatome은 이번 EPR 원전 건설에 있어서 핵중기공급계통(NSSS)과 안전성과 관련된 계측제어기 구매 등 핵심 기기의 공급 업무를 담당했으며, 각종 기기의 설치 및 시운전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했다.

Fontana 회장은 현재 Flamatome은 Taishan 1호기의 상업 운전과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Flamatome은 중국의 후속 호기인 Taishan 2호기와 프랑스에서 건설되고 있는 Flamanville 3호기, 그리고 핀란드에서 건설되고 있는 Olkiluoto 3호기의 성공적인 완공과 가동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면서, 이에 더하여 영국의 Hinkley Point 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Flamatome이 쌓아가고 있는 이러한 광범위하고도 소중한 경험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 계속하여 추진될 모든 EPR 원전



Taishan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소중하고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최초의 EPR 원자로인 Taishan 1호기 및 2호기 건설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 11월에 프랑스의 Areva와 중국의 CGN 간에 체결된 80억 유로(95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CGN(51%), 프랑스의 EDF(30%), 그리고 중국의 지방 전력회사인 Yuedian(19%) 등 3개 기관이 공동 투자로 설립된 Taishan Nuclear Power Joint Venture Company Limited가 수행하고 있다.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시작된 Taishan 1호기 및 2호기의 건설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대략 5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에 중국의 인허가 담당 정부부처인 China's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가 Taishan 1호기의 최초 연료 장전을 허가하였고, 6월 6일에는 최초 임계에 도달하였다. 이어서 2018년 6월 29일에는 성공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되었다.

- <WNN> 06-29

핵연료산업 부문 첫 개방

중국이 처음으로 핵연료산업을 대외에 개방한다고

중국 21세기 경제보도가 7월 5일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최근 공동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을 발표,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방 조치에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그동안 외자 진입이 철저히 제한된 핵연료산업이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방사성 광산의 제련과 가공, 핵연료와 핵방사기공 관련 제조업에 대한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방사성광산 제련과 가공 분야에서 외자 진입을 금지한 것은 물론, 핵연료, 핵재료, 우라늄 관련 기술의 생산과 경영, 수출입은 자격을 갖춘 중앙 국유 기업이 하도록 했으며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리도 국유 기업이나 국가 자본이 통제하는 기업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조치로 관련 제한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은 '핵발전중장기발전계획(2005-2020년)'에 따라 핵발전 설비용량을 2020년에 4천만kW(킬로와트)로 늘리고 투입 자본도 국가 투입 일변도에서 은행 대출, 주식, 채권 발행 등으로 다원화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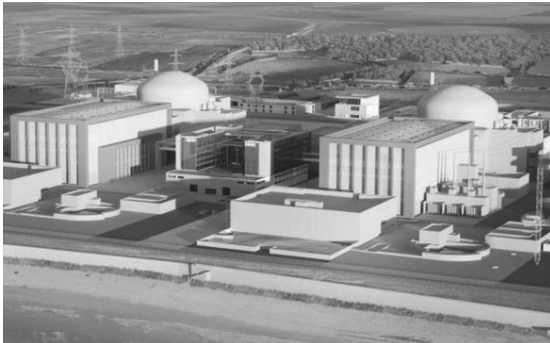
- <연합뉴스> 07-05

EU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 승인 · 정부 보조 타당"

영국 남서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결정은 타당하며, 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역시 경쟁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7월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일반법원은 영국 'Hinkley Point C' 프로젝트 승인이 재생 에너지를



Hinkley Point C 원전 조감도

지원하는 EU 정책에 위배된다며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동안 유럽 지역의 원전 건설을 반대해왔다. 룩셈부르크 역시 이번 프로젝트가 경쟁을 왜곡하고, 정부 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가세했다.

‘Hinkley Point C’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Hinkley Point에 1,67기가와트 ‘유럽형가압경수로’(EPR) 2기를 완공하는 사업이다. 영국 내 노후 원전 및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한 전기 에너지 공백을 메우려는 것으로, 완공 후 영국 전체 전기 수요의 7%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억 파운드(한화 약 29조2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국영 에너지업체인 EDF가 주사업자이며,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광핵그룹(CGN)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14년 경쟁 제한 이슈가 없으며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영국 정부는 EDF 측에 일정 기간 높은 수준의 전력요금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EU 일반법원은 “영국은 다양한 에너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EU 집행위원회가 ‘Hinkley Point C’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영국의 계획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조금 지급은 대규모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07-12

러시아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이 요르단 정부와 2000MW급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요르단의 첫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며 원전 수주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다.

7월 12일 로이터에 따르면 로사톰은 최근 요르단 정부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로사톰은 2015년 3월 요르단 정부와 암라 지역에 약 100억 달러(11조원)를 투자해 원전을 짓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발전 규모는 총 2000MW로 요르단에서 추진하는 첫 원전이었다. 원전 1기는 2022년, 2기는 2024년에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로사톰과 요르단 정부가 자금 조달 방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계획은 틀어졌다. 원전 부지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 <글로벌이코노믹> 07-12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지 재표명

프랑스 Bruno Le Maire 경제부 장관은 2018년 World Nuclear Exhibition(WNE)에서 경제성이 강점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runo Le Maire 경제부 장관은 원자력 에너지의 경

제성에 대해 이웃 국가인 독일보다 프랑스의 전력이 40% 저렴하다고 주장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믹스의 다양화를 추구하되, 원자력 비중을 줄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 <NEI Magazine> 06-27

대만

대만 원전 폐연료봉 미국 수송 개시

대만 제4원전 폐연료봉의 미국 수송이 시작되면서 대만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계획의 서막이 올랐다. 7월 4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전력공사는 이날 새벽 신베이(新北)시 룽먼(龍門)에 위치한 제4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 80개를 컨테이너 8대에 실어 지룽(基隆)항을 통해 미국으로 수송했다.

대만전력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제4원전 폐연료봉 1천744개를 모두 수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 총통은 2016년 5월 취임 당시 오는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의 대만 전력 생산 구조는 석탄 45.4%, 액화천연가스(LNG) 32.4%, 원전 12.0%, 신재생에너지 4.8%인데 이를 LNG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름철 전력부족 문제에 부딪히자 지난 5월과 6월에 고장 등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제3원전 1호기와 제2원전 2호기 등 2개 원자로를 각각 재가동하면서 탈원전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07-04

핀란드

Fortum, 독일 발전회사 지분 인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인 Fortum이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발전사인 Uniper의 지분 47%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 Uniper는 2016년에 천연가스 거래와 저장 및 스웨덴의 Oskarshamn 원전 등 발전소 운영을 위해 독일 E.On으로부터 분할되었다. E.On은 Fortum에 Uniper의 지분 46.65%를 매각함으로써 38억 유로(약 5조원)를 받을 예정이며, Fortum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Fortum은 북유럽 국가에서 전력 및 열 생산을 주로 하지만, 다른 유럽지역과 인도, 러시아에도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Uniper는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재정 지원을 포함해 유럽과 러시아에서 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주 독일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Fortum의 CEO는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 배출 거래시스템에서 탄소 가격을 높일 것을 반복해서 요청해온 바 있다.

- <Nucleonics Week> 06-21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 10곳 원전 건설부지 후보 제시

우즈베키스탄의 Uzbekenergo는 러시아 Rosatom에게 원전 건설 부지 후보 10곳(Tashkent, Fergana Valley, Bukhara-Smarkand 등)을 제시했으며, 러시아는 전력, 도로 등 인프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월 원자력분



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Azer News> 06-25

브라질

원자력에너지 개발 확대 시사, 원전 추가 건설 고려



건설중인 Angra 3호기 원전

브라질 미세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가 핵에너지 개발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7월 15일 브라질 일간지 플라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테메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포함해 핵에너지 개발 확대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생산과 수출을 늘리는 방안도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08년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된 브라질 핵 프로그램 개발 위원회(CDPNB)가 작성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위원회는 현역 군 장성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방정부 11개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국가안보실은 올해 말까지 새로운 핵에너지 개발 계획을 마련해 연방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브라질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은 수력 68.1%, 천연가스 9.1%, 바이오매스 8.2%, 태양력·풍력 5.4%, 석탄 4.2%, 원자력 2.6%, 석유 부산물

2.4% 등이다. 새 계획은 수력 발전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원자력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전 추가 건설과 원자력 에너지 개발 확대 계획을 둘러싸고 에너지와 환경 전문가 그룹 간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력 부족과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으려면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주 앙그라 두스 헤이스 지역에서는 1982년과 2000년에 건설된 앙그라 1호기(657MW)와 2호기(1천350MW)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앙그라 3호기(1천405MW) 원전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앙그라 3호기 원전 건설 계획은 1980년대부터 추진됐으며, 2007년에 공사가 시작됐으나 예산 부족과 채무 부담 가중, 환경 문제 등 때문에 2015년 9월께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 <연합뉴스> 07-16

요르단

상용 원전 대신 소형원전(SMR) 선택

요르단의 Dr. Khaled Toukan 원자력위원장은 러시아가 건설 예정이던 2,000MW 용량의 상용 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더 낮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는 소형 원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CNNC와 중국형 SMR(HTR) 도입에 대한 경제성 조사를 시행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나 중국 내 상업 운전 전까지는 건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MEMO> 06-29